순창군 관광객 500만 시대 선언

강천산 야간명소화 · 270m 구름다리 건설
수체험센터 · 동굴형 체험관 등 사업 순항

순창군이 순창만의 경쟁력 높은 관광정책들을 추진하면서 민선 7기 관광객 500만 시대 실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군이 최근 이른바 관광정책 빅4로 불리는 사업들에 대한 속도를 내면서 500만 관광객 실현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순창군이 추진하는 중요 관광사업은 강천산야간명소화사업, 섬진강뷰라인 연결사업, 동굴형체험관과 수체험센터 건립사업이다.

강천산 관광의 다양성을 높이고 순창관광자원을 다변화해 1박 2일 체류형 관광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는 핵심사업으로 사업규모 또한 크다.

강천산야간명소화 사업은 강천산매표소에서 천우폭포까지 1.3km 구간 산책로에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다양한 빛과 스토리를 가미한 영상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조선중기 고전소설 설공찬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강천산의 공간에 맵핑, 홀로그램 등 미디어아트 영상과 경관조명으로 이야기속 장면을 구성한다. 총 38억이 투자되며 내년 상반기 안에는 시험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야간관광객 유치는 숙식을 지역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체류형 관광시스템 완성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군 측은 기대하고 있다.

섬진강뷰라인 연결사업은 강천산 중심 관광자원의 외연을 적성 채계산과 섬진강으로 확대하는 의미가 크다. 적성면 괴정리에 위치한 채계산 중턱 75~90m 지점에 270m 길이 국내 최장 구름다리를 건설해 전국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안전성을 강화해 내년 7월경에는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수체험센터와 동굴형 체험관은 강천온천수의 힐링 기능을 체험으로 연결하는 순창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다. 강천온천수는 언론을 통해 건강기능이 알려지면서 물을 마시러 전국에서 사람이 몰리고 있다. 수(水)체험센터 음용온천수를 활용한 다양한 예방 차원의 건강체험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업이다. 90억원을 투자해 온천치유 누리실, 스파체험실, 테라피실, 야외풀, 족욕산책로 등이 들어서며 내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동굴형체험관은 동굴이라는 독특한 공간형태를 활용 순창온천수의 신비감을 부각시킨다. 치유의샘, 게르마늄 치유공간, 안개분수 등이 들어선다.

황숙주 군수는 관련해서 "민선 7기에는 관광객 500만 시대를 꼭 열수 있도록 하겠다" 면서 "관광객이 순창에서 머물도록 유도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이 순창만의 경쟁력 높은 관광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 예산동아리인 온새미로는 12일 경북 상주시의 초청으로 상주시청 대강당에서 공무원, 시민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예산동아리의 운영과 주요성과'라는 주제의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남원시청 예산동아리, 전국 모범사례 우뚝

경북 상주서 지방재정개혁 발표… 타 지자체서 벤치마킹도

남원시 예산동아리인 온새미로(이하 온새미로)는 12일 경북 상주시의 초청으로 상주시청 대강당에서 공무원, 시민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예산동아리의 운영과 주요성과'라는 주제의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등 시의 지방재정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전국의 모범사례로 우뚝 서고 있다.

예산동아리 온새미로는 2014년 각부서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모임으로, 시의 효율적인 예산운영, 예산절감, 세원발굴, 행정효율화 등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과 지식공유를 통하여 남원시의 지방재정 개혁을 위한 독특한 아이템을 발굴하는 모임이다.

이번 초청은 상주시와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본부가 개최하는 "2018년 찾아가는 세금바로쓰기학교 행사"의 일환으로, 온새미로는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권의 열악한 남원시 재정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세외수입 재원을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연구하는 동아리로 성과가 높이 나타나고 있다.

온새미로는 이날 상주시에서 자치단체와 기업체간 MOU 체결로 세외수입 확보, 알기 쉬운 예산이야기 출간, 한눈에 보는 남원시 살림살이 역사, 전국최초 지방재정 23년사 발간, 찾아가는 예산 끝장토론회 운영, 예산소통방 운영, 공공기관과 협업행정으로 재래시장 봉사활동 등을 설명했다.

남원시의 온새미로 활동은 최근 다른 지자체에서의 벤치마킹은 물론 초청받아 우수사례 발표를 하는 등 주변의 귀감이 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메아리

남원시, 고품질쌀 유통기반 구축

남원시는 WTO 등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급변하는 쌀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벼 유통시설 확충에 따른 수확기 벼 매입기반을 집중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남원시에서는 쌀 산업 경쟁력 육성을 위해 2016년도부터 가을철 수확기 산물벼 매입과 벼 야적 등에 대한 절실한 문제점을 파악, 전북도에 신규 사업을 건의해 남원 최초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7년 전북쌀 Rice-up프로젝트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억2,000만원을 확보했다. 전북쌀 Rice-up프로젝트 사업사업은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과 비미곡종합처리장(RPC) 농협을 대상으로, 벼 자체매입에 따른 보관창고를 신축 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16년 3~4월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을 신청해 지난해 11월 춘향골농협(조합장 임승규), 남원농협미곡종합처리장(조합장 박기열) 2개소가 최종 선정되었다.

특히, 이 사업은 국고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2억2,000만원, 시비 6,600만원, 자부담 1억5,600만원 등 총 4억4,200만원이 투입돼 벼보관창고 2개소(828㎡)를 신축, 금년 가을부터 벼 수확기 자체매입에 저장·보관까지 안정적으로 매입 유통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게 됐다.

이준무 농정과장은 "들녘경영체·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와 자체 계약재배를 강화하기 위해 미곡종합처리장을 생산·가공·유통 중심체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의회, 제233회 임시회 개회

순창군의회(정성균 의장)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3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8대 군의회 개원 이후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임시회로 2018년도 순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을 계획이다.

정성균 의장은 12일 개회사를 통해 동료의원에게 전체적인 군정업무 파악으로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을, 질책보다는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집행부에는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에 대비해 재난안전과 질병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군의회는 오는 17일까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후 18일 상임위원회(이기자 운영행정위원장, 손종석 산업복지위원장)에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6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 발굴 노력

지역농업인 대상 아열대 작물 재배 현장교육

임실군이 민선 7기 농업정책의 핵심인 신소득 특화작목 발굴, 육성을 위해 이상기후에 대비한 새로운 농업환경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열대과일 재배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며, 기후 온난화에 대비한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군은 농촌지도자와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 등 지역 농업인들과 함께 아열대 작물 재배를 위한 벤치마킹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들이 기후 온난화에 따른 새로운 작목 도입 및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제주도 현장교육을 다녀왔다.

현장교육에는 농촌지도자를 주축으로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4-H연합회 회원 등 35명이 참가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 농업연구소와 제주도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업생태원, 열대작물 시험포장 등을 견학하고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기시켰다. 온난화대응연구소의 연구성과 소개와 아열대 작물 재배 교육도 병행됐다.

김성철 연구원은 "우리나라도 아열대 기후에 접어듦에 따라 아열대 채소·과일관련 연구가 활발해지고 재배 농가와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따라 사과 같은 기존과일의 재배 면적이 점점 좁아지고 있어 조만간 열대과일이 이들을 대체할 작목으로 인기를 끌 것"이라고 예상했다.

교육에 참여한 박세일 농촌지도자 임실군연합회장은"기후 온난화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돌발 병해충 피해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한 대안 마련에 힘써야 겠다"며 "가정에서도 전기를 아끼고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탄소 감축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기후 온난화 예방에 보탬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군은 폭설과 한파, 가뭄, 폭염 등 이상기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선도 농업인을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빠르게 바뀌어 가는 농업환경에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작목을 발굴, 지원하여 임실농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 나갈 방침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현장 지도 전문성 확대

임실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0일 신평면 소재 지역농업실증시험포에서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장마철 현장지도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강화되는 농약잔류허용기준 PLS제도 교육과 함께 집중호우대비 작물별 사전사후 대책에 대한 내용을 심도 깊게 다루어 현장지도에 필요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1교시는 고추재배 시 장마철 사후대책과 주요병해충에 관한 강의였다.

장마철에 주로 발생하기 쉬운 역병, 탄저병, 담배나방, 총채벌레의 예방 및 방제법과 사후대책으로서 물빼기, 엽면시비, 뿌리피해 예방법 등의 교육을 인근고추포장에서 현장사례 중심이였다.

2교시엔 과수분야 장마 및 태풍대비 과원관리 요령 교육이 진행됐다.

연속강우 시에는 포도 등 과수에서 발생하는 열과피해 현상이 우려되므로 올바른 관·배수 관리로 원활한 뿌리 생육을 도모해야 함을 강조하는 관리대책 교육을 추진했다.

토양이 유실된 과원은 나무의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빨리 흙을 채워주고, 침수된 과원은 배수로를 정비하여 물이 빨리 빠지도록하고 잎에 묻은 이물질을 씻도록하는 사후관리대책를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